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저수지 사전방류

윤 김상준기자 | 승인 2026.06.21 17:46 | 11면

관내 저수지 85개소 관리수위 준수·선제적 방류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는 본격적인 홍수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 85개소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수위 준수와 선제적인 사전방류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지사장 이주헌)는 본격적인 홍수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 85개소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수위 준수와 선제적인 사전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천지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신,대현,중촌,가회 저수지 등 주요저수지 4개소에 설치된 비상방류 수문을 적극 가동해 안전하게 수위를 조절하였으며, 비상방류 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저수지의 경우, 사통 및 간이방류시설(사이판)을 총동원해 체계적인 방류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합천지사는 저수지 및 배수장등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호우 등 만일의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만반의 준비을 갖추고 있다.

이주헌 합천지사장은“기상상황과 저수지 저수율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속 모니터링해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저수지 관리수위 유지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